

위중증 가족들 “기초수급인데 코로나 치료비 수천만원”

위중증 환자 가족들 청와대 앞 기자회견 “평범한 시민들 수천만원 감당할 수 없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보호자들이 “치료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정부에 치료비 전액 지원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은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중증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 실태를 전했다.

이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 1월 통계에 따르

면 코로나19 중환자 평균 입원 일수는 31.6일, 하루 평균 치료비는 156만원이다.

이날 발언대에 선 민지(35)씨는 코로나19로 두 달 넘게 입원 중인 어머니의 치료비 중 환자부담 총액이 지난 5일 기준 3600만원이 넘었다고 전했다. 어머니는 현재 중환자실에 있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에코모(인공심폐기)를 장착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 치료비는 격리해제(검체채취일부터 7일) 전까지만 지원되며 기저질

한 치료로 분류되면 이후 병원비는 환자 측에서 부담해야 해야 한다. 민지씨의 어머니는 고혈압 등 질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지씨는 “기초 수급자가 어떻게 수천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겠나. 이게 위중증 환자 가족이 처한 현실”이라며 “저는 어머니를 돌보면서 생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고 호소했다.

격리해제 기간이 지난달부터 20일에서 7일로 줄어든 점에 대해서도 보호자들은 “가뜩이나 제한적인 위중증 환자 입원 기간과 치료비 지원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부가 위중증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드코로나 한다며 방역을 완화할 때마다 확진자가 늘고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증가했다”며 “방역 실패 책임을 개인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진기자



잔뜩 움츠린 어깨 전국 곳곳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꽃샘추위가 이어지는 7일 오전 서울 중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낮 최고기온은 14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정부 “코로나19 치명률 0.19%…최근 계절독감과 유사”

주말 검사량 감소로 확진자 줄어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코로나19 치명률이 0.1%대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손영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7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지난 3주간 치명률 0.1% 수준이며 총 누적치명률도 0.19%까지 떨어진 상태”라며 “오미크론이 완전히 우세종화되면서 주간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거의 유사하다”고 말했다.

치명률은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최근 3주간 치명률은 2월 1주 0.1%, 2주 0.1% 그리고 3주 0.09%로 0.1%대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누적 치명률은 0.19%다.

3차 백신 접종완료자는 치명률이 계절 독감과 유사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의 미접종자에게는 치명률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 반장은 “3차 백신 접종완료자는 치명률이 0.07%로 계절독감과 유사하고 특히 60세 미만 3차 접종자들의 치명률은 0% 수준”이라며 “고령층 미접종자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지만 접종은 완료하면 계절독감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반장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감소한 데 대해 “주말 검사량이 감소했던 관계로 오늘 확진자가 조금 낮게 나왔다. 통상 월-화 확진자는 다소 낮게 나오고 검사량 회복 반영된 수일부터 다시 증가하는 패턴”이라며 “(대통령 선거 관련) 이상한 오해나 허위성 뉴스에 유념바라라”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1만716명으로 전날(24만3628명)보다 3만2912명 감소했다.

김재환기자

정부 “확진 산모, 다니던 산부인과서 분만하도록 개선”

분만 병상 161개 확보…다음주 250개로 확대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를 위한 병상이 전국에 161개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음주 중 250개로 대폭 늘리고, 임신부들이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현재 확진 임신부가 분만할 수 있는 병상은 전국에 161개가 있다. 지역별로 영남권이 86개로 가장 많고 수도권 57개, 호남제주권 10개, 충남 7개, 강원 1개 순이다.

확진 임신부를 위한 분만 병상은 지난달 22일 82개 수준이었으나 같은 달 25일 117개, 이달 들어 161개로 확충됐다. 정부는 다음주 중 확진 산모를 위한 분만 병상 수를

250개로 늘릴 방침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진된 산모들을 위한 병상은 다음 주까지 250여개로 늘리고, 원래 다니던 일반병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임신부가 그간 다니던 산부인과 등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이번 주 중 임신 병원에 전달할 방침이다.

박 항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비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확진 산모가)

다니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병상 및 일반의료기관 관리지침을 질 병관리청이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에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확진 임신부 분만 병상을 운영하는 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반 임신부들에게 충분한 안내가 되지 않아 자칫 기피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박 반장은 “대한분만병원협회 등과 협의 중이며, 병원도 임신부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서 산모의 분만을 받았으면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병원명은 미확진 산모들에게 안내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부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